

2022. 12. 10.(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0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디자인재단 홍보팀

전시1팀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홍보팀장	권 희 대	02-2096-0020
담당자	김 민 희	02-2096-0025
전시1팀장	유 주 이	02-2153-0061
담당자	백 민 영	02-2153-0066
관련 누리집		www.ddp.or.kr

서울디자인재단, 우주의 질서 담은 활자 세계…DDP 전시로

- DDP 디자인갤러리에서 <진달래&박우혁: 코스모스>전 개최(12.09.~'23.3.26.)
- 깊이 있는 예술 탐구를 위해 타이포그래피를 그래픽, 영상, 설치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 ‘글자와 이미지’ 보다는 ‘움직임’에 방점을 찍은 신선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선보여
- 서울라이트 DDP 행사 기간동안 ‘우주’라는 공통 주제로 함께해

국가명을 국가의 크기와 고유 색상에 맞게 세계지도 모양으로 배열해 놓은 이미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용된 메뉴들의 명칭을 색감과 질감을 살려 입체적으로 표현한 유명 버거 광고도 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영화 포스터, 잡지, 광고 등에 자주 쓰이는 활자 디자인(이하 타이포그래피)이다. 타이포그래피는 서체의 종류, 크기, 자간, 어간 등을 재배열하거나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글자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강화하거나 특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사용된다.

<밀양> 영화 로고타이프 작업으로 국내 알려진 진달래&박우혁 예술공

동체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전시 <진달래&박우혁: 코스모스>를 개최한다. 전시는 타이포그래피를 두 작가가 최근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설치, 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됐다.

- 전시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에서 지원하는 ‘디자인 전시 시리즈’ 일환으로, 12월 9일(금)부터 23년 3월 26일(일)까지 DDP 1층 디자인갤러리에서 열린다.
 - ‘디자인 전시 시리즈’는 각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전문 큐레이터로 참여시켜 전시 콘텐츠의 전문성을 높이고, 트렌드의 생생함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이다.
- 이번 전시 주제는 ‘코스모스’다. 전시 기획자인 진달래&박우혁 작가에게 ‘코스모스’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묻자 “코스모스(cosmos)는 우주 만물의 질서를 뜻하는 단어다. 지난 우리의 여러 작업적 시도들은 불확실하고 고정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만물이 질서를 가지고 있듯 우리의 작업도 지금 와서 보니 어떤 질서와 조화로 인해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모스는 우리의 작업 여정을 함축해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다.”고 주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진달래&박우혁의 그래픽 작업은 가장 작고 유일한 타이포그래피 요소인 ‘활자’를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부분과 전체, 분해와 조립, 반복과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기본은 그들의 모든 그래픽 디자인 작업의 공통된 요소다.

- 그들의 작업은 타이포그래피 원리를 기초로 하지만 글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생각하는 타이포그래피란 ‘글자와 이미지의 형태’가 아닌 ‘움직임’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 전시장은 우주의 유기물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우주선, 우주 공간을 연

상케하는 전시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진달래&박우혁이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작업한 그래픽 디자인 결과물이 영상물 40여 점과 인쇄물 120여 점으로 전시된다. 작품은 안녕(평안)한 세상을 바라며 2011년부터 발행한 비정기 신문 <아카이브안녕 1~21호>과 북 디자인 <스탠퍼드 철학 백과의 항목들 시리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 규칙과 논리를 이탈한 징후와 파편을 담아 그 자체로 예술 작업의 일부가 된 신문 <아카이브안녕>과 그래픽을 설치, 사운드, 영상, 퍼포먼스로 확장한 <마스터 플랜: 화합과 전진> 등 이들의 작업들은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에 새로운 시도를 위한 단초 역할을 해왔다.
-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자신의 저서 <코스모스>에서 “유기분자는 우주 어디에서나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두 작가는 칼 세이건의 말을 인용해 “우리들의 작업 활동은 암흑 속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찾는 여정이며, 우주 어딘가에 있을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작업용 ‘유기 분자’를 확인하고 채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시는 <서울라이트 DDP> 행사 기간 동안 ‘우주’라는 공통 주제로 열려 이 기간 DDP를 방문하면 전시와 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전시는 무료이다.

불임 1. 전시 포스터

2. 전시 개요
3. 작가 소개
4. 주요 작품 소개 끝.

불임 1

전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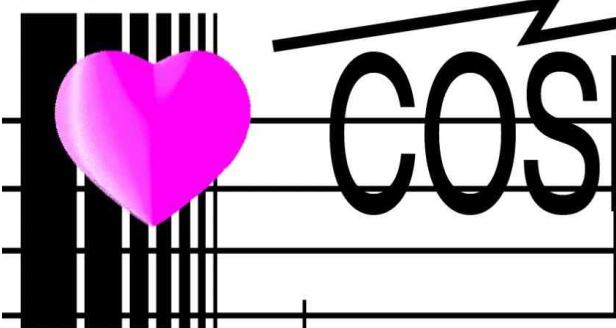
진달래 & 박우혁 :

코스모스

JIN Dallae &

PARK Woo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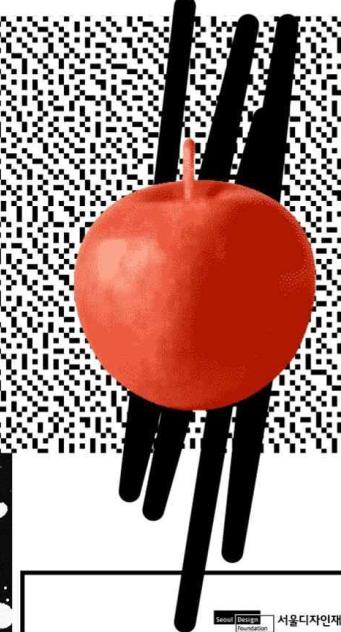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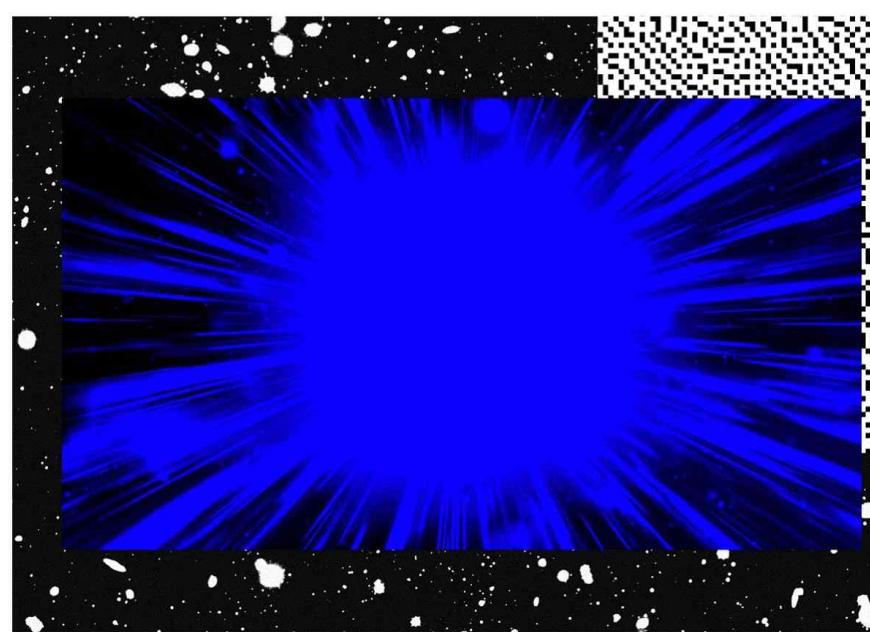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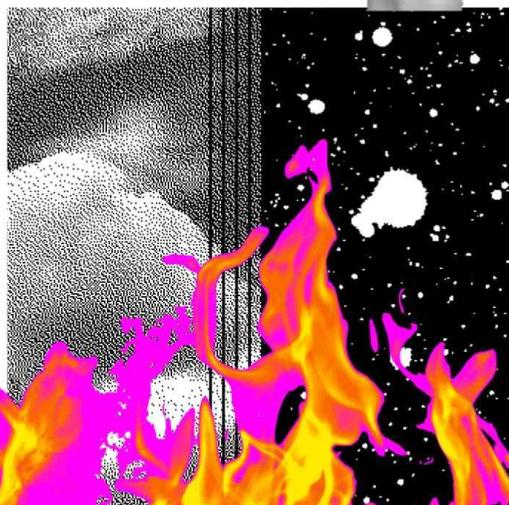
COSMOS



DDP
Design
Gallery

2022.12.9 –

2023.3.26



Seoul Design Foundation
서울디자인재단

불임2 전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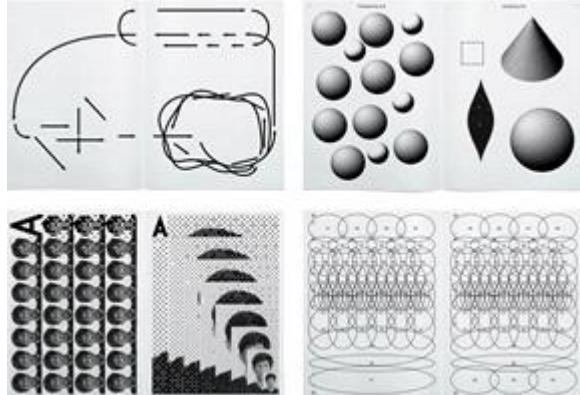
- 전시명: <진달래&박우혁: 코스모스>
- 일 시: 2022.12.09.(금)~2023.3.26.(일)
- 장 소: DDP 디자인갤러리
- 관람료: 무료
- 기타 : 상세 내용은 DDP 홈페이지 참조 www.ddp.or.kr

불임3 작가 소개

- 진달래&박우혁은 디자인과 예술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공동체다. 국립현대미술관, 빅토리아 앤버트 박물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사회, 문화, 예술 단체를 위한 그래픽, 아이덴티티, 온라인 기반의 디자인을 하고 있다. <2018-2019 타이포잔치: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았고, 2D와 3D 영상, 설치, 퍼포먼스,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결합한 다원 예술 전시와 공연, 사물과 현상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아카이브안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주제의 출판물을 출판하고 있다.
- 스튜디오 타입페이지의 대표 진달래는 홍익대학교에서 조소와 디자인을 공부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캐나다 폰드리 달링, 금천예술공장의 입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 박우혁은 홍익대학교와 바젤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했고,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부교수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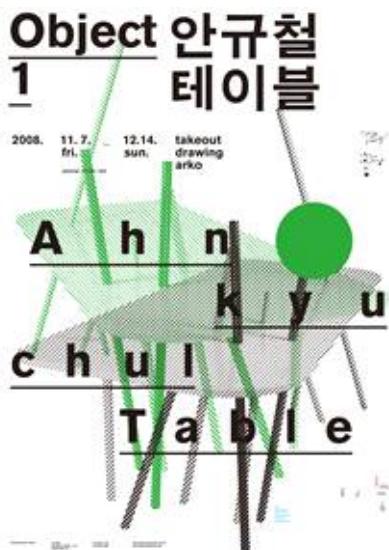
불임4 전시 주요 작품

〈아카이브안녕 1호-21호〉, 2011-현재, 신문, 530×39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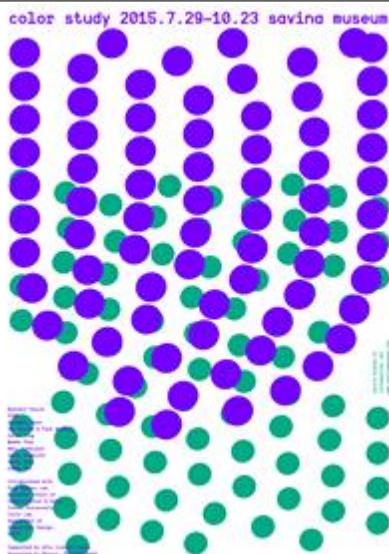
사물과 현상의 보편적 원리와 현상을 정의하는 사회, 문화적 태도를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스스로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낙관적인 직관을 기록한다는 컨셉 아래, 진달래&박우혁의 해석된 세계를 신문 형식의 매체를 통해 발행해왔다. 때로는 예술작업을 설명하는 출판물로, 때로는 그래픽 스코어나 개념을 보여주는 작품의 일부가 된다. 2011년 첫 발행되어 현재까지 21호가 발행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신문과 관련한 자료와 작업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상영한다.

〈안규철 테이블〉, 2008, 전시그래픽 아이덴티티, 841×594mm, 테이크아웃드로잉



카페 겸 전시공간인 '테이크아웃드로잉'에 열린 전시 중 하나인 〈안규철 테이블〉을 위한 포스터, 엽서 등의 디자인이다. 텍스트와 이미지가 가구의 골격처럼 결합하는 구조를 상상하게 하는 배열을 구사한다. 텍스트 배열은 좌측과 중앙의 분해 배열을 혼용해 자유로운 인상을 강조했다.

〈컬러스터디〉, 2015, 전시그래픽 아이덴티티, 841×594mm, 사비나미술관



사비나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컬러스터디》를 위해 디자인한 포스터 시리즈다. 일정한 점과 선의 모듈을 기초로 알파벳 26자를 디자인한 후, 각각의 알파벳에 색을 부여하고 중첩해 일종의 컬러 패턴과 컬러조합을 구현한다. 3종의 포스터와 4종의 엽서로 제작되었다.